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목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점령하라' 시위대의 외침은 이 금융기...

"월가를 점령하라"

와 혁명이 필요하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렇다. 지금은 분명 자본주의의 위기...

으로 인한 이 세계의 불평등을 자본주의 적 방식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F1 개최권료 재협상 반드시 끌어내야

F1(포뮬러원) 대회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개최권료 재협상이 압초에 부딪혔다. 전남도와 F1조직위가 개최권료 및...

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전남도가 내놓은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2



박행순

실산 히말라야는 한국 산악인들을 통하여 때로는 친근하게,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안나푸르나에 잠든 위대한 산사나이들이여!

듣는 네팔 교민들의 안타까움은 너무도 컸다. 일부 교민들은 그를 직접 만났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모나이트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곳이 한 때는 바다 밑이었으나 언젠가 엄청난 지각변동으로 융기되었음을 말해주는데 네팔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런 이름을 붙였지 궁급하다.

광주시, 브랜드택시 결합 두고만 볼 건가

광주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심 차게 출발시켰던 '광주 브랜드택시' N콜이 잦은 기계 결합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승객들마저 외면해 이렇듯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 보조금을 지원했던 N콜 46개 법인 750대의 택시 중 3개 업체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현재 43개 법인 721대만 운행 중이다.

기고

한나라당, 간판 내릴 각오해야



정웅화

10·26 재·보궐선거 여파로 여야 모두 비상이다.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영 모두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했다. 대신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생활정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요구했다.

패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세론'에 안주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했다. 소통을 위한 노력과 국민 불안 해소 위한 대안 제시에도 실패했다.

無等鼓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태국의 수도 방콕은 '물의 도시'로 불린다. 방콕은 차오프라야강을 끼고 있어 물은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소시민들의 일상은 애처롭게 그지없다. 돈 있는 사람이야 높은 호텔 방에 피신하면 그만일 테지만 강에서 하루 벌 어 하루를 지내야 하는 밀바닥 인생들은 그야말로 물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물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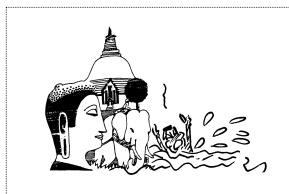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the newspaper and website.

교통약자 노인 배려하는 운전습관 갖자

노인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교통 약자로서의 배려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국적인 사망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총 교통사고 유형별로 보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점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급증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양분과 노인분들의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의 재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다. 노인들의 보행속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 50% 이상 느리다고 한다. 그러므로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발견 시 반드시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